

덕과 언행의 불멸을 믿는 '인문화성'의 원동력

동양철학은 시간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승환 | 고려대 철학과 교수

서양과 달리 동양의 시간은 인간의 시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다. 시간 안에서 가장 최적의 가치를 추구하는 적합성의 원리는 동양철학의 기본이 된다. 바로 이 시간관에서 주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접근하는 인문화성의 세계가 나왔다. 21세기, 동양적 시간관은 서구 근대사상의 공백을 메우는 철학적 깊이를 지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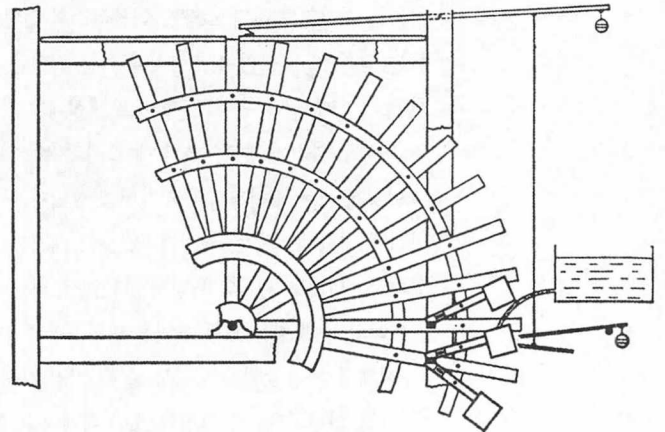
'시간'이란 때[時]와 때 사이의 간격[間]을 말한다. '때와 때 사이의 간격'은 경우에 따라서 한없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도 단잠적(短暫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 시간은 관찰자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 상대적이다. 인간은 '현재'를 누리는 생명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하지만, '현재'는 항상 순식간에 '과거'로 흘러간다. 이 점에서 '시간'의 흐름은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모든 존재는 소멸되고, 생명 역시 노쇠의 길을 걷게 된다. 젊음을 잃는다는 것, 늙는다는 것, 그리고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일은 커다란 두려움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영원의 세계'를 동경하게 되고, 이 세계야말로 불변하는 '절대적 가치'를 담지한다고 여기게 됐다.

서양의 초시간적 세계와 동양의 '우주'

'영원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서양 지성사 전반에 걸쳐 너무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단히 생성·소멸하는 현상세계는 진실하지 않다고 보고, 진실한 세계 혹은 진리의 세계는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이데아의 세계라고 봤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모든 존재의 궁극 원인으로

'부동의 원동자(unmoved mover)'를 상정한 다. 즉, 자신은 시간과 변화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다른 사물에게 움직임을 부여하는 존재야말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봤다. 칸트 역시 세계를 현상계(phenomena)와 예지계(noumena)로 구분한다. 현상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경험 세계지만, 예지계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초월의 세계, 진리의 세계다.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세계는 생각된 적이 없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우주(宇宙)'라는 개념은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아우른다. 진한(秦漢)시대의 저작인 《시자(尸子)》에는 "상하사방을 우(宇)라 하고, 왕고래금을 주(宙)라 한다"고 적혀 있다. 즉, 우(宇)는 위아래 그리고 동서남북의 3차원적 공간을 가리키고, 주(宙)는 과거·현재·미래라는 세 시점의 연속적 흐름을 가리킨다. 따라서 '우주'라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된 '존재의 통일장'을 가리킨다. 동양에서 시간 없는 공간이나 공간 없는 시간은 상상할 수 없었으며, 모든 존재는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범주 안에서 파악됐다. 따라서 '이데아'나 '천국'처럼 시간을 벗어난 '초월적 세계'는 생각할 수 없었으며, 나아가 '진리[道]' 역시 '현상세계[器]'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예를 들어,



동양의 시간관은 나선형으로 순환한다. 사진은 중세의 중국 물시계. 《시간의 문화사》(영림카디널)에서.

장자에게 현상세계는 부단히 유동하는 기(氣)의 세계며, '도(道)'는 이런 변화 속에 내재한 함목적적 질서를 의미한다. 또한 《주역》도 세계를 부단히 변화하는 '역(易)' 그 자체로 파악했으며, 궁극적 가치와 진리는 모두 이런 변화 속에서 성취돼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적합한 때를 추구하는 동양적 시간

동양의 시간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뉴턴식의 '절대시간(absolute time)'과 달리 동양에서 시간은 항상 현상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2)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순환하며 흐른다고 생각했고, 3) 초시간적인 영원세계에 대한 동경과는 달리 시간의 흐름과 변화 안에 진리와 가치가 내재한다고 봤다. 동양에서는 모든 존재가 '시간'의 범주 안에 포섭된다고 보기 때문에 행위와 판단에서 '시(時)'를 중시하게 된다. '시'라는 개념은 '적합한 시점(timeliness 혹은 timing)'의 의미다. 즉, 모든 존재와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단히 변화하므로, 인간

은 그 변화 속에서 가장 적합한 시점을 선택해 판단하고 행위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자는 “가장 적합한 때를 골라 움직이라(動善時)”고 말한다. 움직여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판별하는 일은 일의 성공과 실패에 중대한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맹자는 성인(聖人)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여러 유형의 성인 중 ‘시성(時聖)’을 가장 뛰어난 성인이라고 보고 공자를 그 대표적인 경우로 든다. 시성은 “때에 적합하게 행위하는 성인(timely sage)”이다. 즉,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고,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면서 변화하는 사태의 흐름 속에서 ‘최적’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이다. 변화하는 사태 속에서 최적의 때를 파악하는 일은 처신의 정당성과 인품의 고매함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공자가 강조하는 ‘시중(時中)’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중’은 때와 상황에 맞게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일을 말한다. 때에 들어맞는 판단은 곧 ‘최적의 가치(optimal value)’를 도출하는 계기가 된다.

시간을 거스르지 않는, 시간 안에서의 초월

모든 존재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동양의 관점은 자연스럽게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조화를 귀하게 여기게 된다. 1년의 시간적 흐름을 24 절기로 나누고, 각 절기에 맞게 농사일을 진행하는 일은 전통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의 흐름에서 벗어난 농사경영은 흉작과 기근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기’의 의미는 반드시 농사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전통 동양에서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시행할 때도 ‘절기’와의 적합성을 고려했으며, 심지어 사형수의 형집행도 반드시 만물이 시들어 가는 가을을 기다려 실행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그 행위가 자연계의 변화와 때의 흐름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장자는 “때에 편안하게 자신을 맡기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라(安時處順)”고 말한다. 기의 세계는 생성과 소멸의 연속이며, 인간의 생명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일견 무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장자는 때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되면 “슬픔과 기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슬픔과 기쁨에서 벗어나는 일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이지만, “엷매임에서 풀려남(縣解)”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불멸의 삶(immortality)’을 얻으려는 서구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느님이라는 초월적 주재자가 필요했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는 동양인들에게는 그런 주재자의 필요성이 생겨날 수 없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리와 가치를 추구하려는 동양의 입장은 자연히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역사성’을 증시하게 된다. 언제나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검증받은 것만을 진실한 진리로 여겼다. 역사성을 중시하는 동양의 지적 전통과 대조적으로, 근대 서양의 진리관은 ‘탈역사적’이다. 근대 서양인들은 철저하게 ‘역사’와 ‘시간’을 거부한 채 ‘순수이성’에 의해 초시간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왔다. 기존의 모든 신념을 뿌리째 의심하고 출발하는 데카르트의 ‘방법적 성찰’도 그렇지만, 제도나 규범이 생겨나지 않은 ‘사회 이전의 상태’를 상정하고 출발하는 로크의 계약론은 ‘탈역사적 진리관’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신념과 제도를 부정하고 ‘이성’에 의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근대철학은 철저하게 탈역사적이며 초시간적이다. 따라서 서양의 진리관은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특징을 가지는 반면 독단론에 빠지거나 현실세계와 유리된 관념론으로 흐를 수도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양의 진리관은 과거의 지혜와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현실세계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하는 반면 보수적이거나 과거회귀적이 되기 쉽다.

그렇다고 동양문화가 ‘영원의 세계’를 동경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으려 했고, 도교의 도사들은 장생불로할 수 있는 ‘단약(丹藥)’을 만들어 보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로서, 오히려 ‘단약’에 든 중금속 성분 때문에 ‘장생(長生)’은 커녕 병을 얻는 경우가 더 많았다. 유가에서는 이렇게 ‘육신생명’의 영원함을 추구하는 일을 부질없는 집착이라고 보고 ‘정신생명’의 영원함

을 추구했다. 비록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릴 수 없지만 높은 ‘덕’과 훌륭한 ‘언행’은 사라지지 않고 후세에 전해져 만고의 사표가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즉, 유가 전통에서는 ‘육신의 불멸’ 대신 ‘덕의 불멸’과 ‘언행의 불멸’을 믿은 셈이다. 이런 정신생명의 영원함이야말로 유학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면서도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굳건하게 ‘인문화성(人文化成)’을 지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결론적으로, 시간과 관련된 동양의 인생관은 “시간을 거스르는 초월이 아닌, 시간 안에서의 초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초시간적인 보편성의 추구가 아닌, 시간 안에서 최적성(最適性)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동양적 시간관이 주는 세가지 교훈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가 동양의 시간관으로부터 취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첫째,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는 전언이다.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는 인공적 개발과 근대화, 그 무차별적인 정복과 남획은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인간 자신의 생존조건마저 위협하게 됐다. 때에 맡기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전통적 삶의 방식은 복원돼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사성을 중시하는 태도다. 근대화 이래 우리는 자신의 역사와 전통은 돌아보지 않은 채 서구의 이론을 ‘초시간적 보편’으로 숭앙해왔다. 이런 지적 식민주의는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게 ‘적실성’ 있는 지식이 되기 어렵다. 우리가 속해 있는 맥락과 현실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신생명의 영원함을 믿는 태도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는 화폐와 물질적 가치에 전념하느라 ‘영혼’의 고결함과 ‘덕’의 불멸성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 결과는 물질숭배와 사물화로 나타나게 됐다. 다가오는 세기에 우리는 물질적 가치보다 고귀하고 영원한 ‘인문적 가치’를 발굴하고 실현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